

제 127 호

제 6 부활 주일

1975. 5. 4.

순정이

발행인	김종택
인쇄인	범석규
주간	조성호
편집	한상갑

편집실 : 전주시 서노송동 601번지 가톨릭센터 내 (전화 3498)

□ 목 상 □

촛불과 성냥 불

한 상 갑



“초는 몸을 태워 사람을 밝힌다. (A candle lights others and consumes itself)”는 영국의 격언이 있습니다.

촛불은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우리에게 신비감을 줍니다. 성당 제대에 켜있든, 산사(山寺)의 대웅전을 밝히든 신방을 밝히든, 공부방을 비추든지간에 아늑하면서도 엄숙한 신비스러움이 있습니다. 제자신은 뜨거우게 타면서 이웃을 밝혀주기 때문에 더욱 그러한 것 같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 손에 쥐었던 촛불을 기억 하십니까? 부활절 전야의 촛불을 기억하십니까?

촛불은 어둠을 밝혀주는데 그 값이 있지만, 그보다 더한 것은 제자신을 태워서 남에게 빛을 주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예절에 촛불이 많이 쓰여졌은 제 자신을 태우는 고귀한 희생정신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 값진 희생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배웠습니다. 제자신을 태워서 남을 비추는 그것이 곧 그리스도의 기본 생활태도라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은 항상 어려움 가운데 치러내야 할 일들입니다. 부조리의 소용돌이 속에서 때묻지 않게 살자하니 더욱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대로 바리새이들 한테는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해야 하고, 제자신은 맛을 잃은 소금이 되지 않도록 채찍질을 하자니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악의 무리에게 어깨가 바스라치는 짓눌림의 고통을 받기도 해야 하고, 남보다도 어렵게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싫어서, 자기의 사업 때문에 양심의 문을 닫고 타협해 버리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촛불이 되기를 거부합니다. 지도자들이 그러할 때, 그것은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하기야 촛불은 어느 기간 동안 주위를 밝히는 영광(?)을 누리기는 합니다. 그보다 더한 것은 그 촛불을 밝히기까지 제 몸을 살라서 불을 붙여준 성냥불입니다. 영광도 없습니다. 마치 하나의 나팔대응을 위해서 수없이 죽어간 병사들처럼 말입니다.

영광을 바라는 사람들도 제 몸을 태워서 빛을 주는 촛불이 되기조차 싫어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성냥불이 되기를 기대하기는 더욱 어려울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을 위로하시다가 아버지께 가야 할 때가 이르자 오늘 복음에서 그 제자들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당신들을 고아들 처럼 버려두지는 않겠습니다. 나는 꼭 당신들에게로 돌아옵니다.” (요한 14:18)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대한 보증이십니다.

아무리 어렵고 고달프더라도 그리스도인 우리 하나 하나가 성냥불이 되어 어둠을 밝힐 때, 아버지의 평화가 우리를 행복하게 해 주십니다. <본지 편집인>

✽이 주일의 미사*

(1) 개회식

□ **입당송** 기쁨에 넘치는 목소리로 전하며 들려주어라. 땅의 구변에 이르기까지 전파하며 주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셨다 하라. 알렐루야.

(2) 말씀의 전례

□ **제1독서** (사도행전 8:5-8, 14-17 성서 p282) 그들에게 손을 얹자 그들은 성신을 받게 되었다.

□ **증거송** ① 온 땅은 춤추며 하느님을 기리라. 온 땅은 춤추며 하느님을 기리라. 그 이름의 영광을 노래하여라. 빛나는 찬미를 당신께 드러라. 너희는 주께 아뢰어라. “당신의 하신 일이 얼마나 놀라운고” ②

□ **제2독서** (베드로전서 3:15-18 성서 p 533) 육적으로는 죽으셨으나 영적으로는 다시 사셨다.

□ **알렐루야** 알렐루야. 나를 사랑한다면 내 말을 잘 들으라. 그러면 내 아버지도 너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너에게 가리라. 알렐루야.

□ **복음** (요한 14:15-21 성서 p 244)

아버지께 청하면 다른 협조자를 보내시리라.

□ 신자들의 기도

1. 성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오니/주여, 성 교회의 잘못을/모두가 깊이 반성하고 뉘우침으로써/더욱/교회가 평화를 위하여/소금과 누룩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①주여 우리의 기도를...

2.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오니/주여, 들을 수 있고/볼 수 있는 우리들로 하여금/당신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진정 평화를 위하여 어떤 것인지/말할 수 있는 행위를 주시어 우리들로 하여금/어둠을 밝힐 수 있는 행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부정, 불의/허위와 불목의 어둠속에서/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들에게도/당신의 사랑이 임하도록 은총주소서 ②

3. 주여, 성모성월을 맞이하여/우리도 성모님과 같이/당신의 더욱 가까운 협력자가 되도록 은총주소시며/평화를 위하여 계속 기구하라고 하신/성모님의 말씀/가슴깊이 새겨 실천할 수 있도록 은총 주소서 ③

+ 주여, 당신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어/ 우리의 기도와 소망이 헛되지 않게 하소서. 우리주... ④아멘

(3) 성찬의 전례 □ 불린 □ 성찬식

□ **영성체송** 나를 사랑한다면 내게명을 지켜라. 내 아버지께 청한다면 다른협조자를 너희에게 보내 시리니 그는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알렐루야.

순정이 산책



나? 나?

임실 치즈 공장

“수요없어 버리는 양유보고 착안”(68. 8. 8 조선일보) 한 임실 치즈 공장은 “지역사회 개발에 협조하는 교회”(68. 9. 15 가톨릭 시보)의 모습을 보여 주었다. 코크고 키크 벽안의 서양 신부는 “경제적 정의 실현을 위해 휴속에 뛰어들어 농민의 친구가 되어” 사목하고 있다. 하지만 섭섭하게도 독자들이 이 <순정이>를 받아 읽는 이틀진(5월 2일)에 그 벽안의 신부는 한국 체류기간이 끝나게 된다.

이제 잠시 한국 유일의 치즈 공장을 찾아 그 벽안의 지정환 신부를 만나 보기로 한다.



(지정환 신부)

☆ 치즈 공장 ☆

방치된 산에 산양과 젖소를 키우고, 그 우유로 치즈를 만들며, 그 찌꺼기는 소와 돼지의 먹이로 쓰고 그 소와 돼지로 쓰시지를 만들어 농가의 수입을 올려 보겠다는 꿈은 꽃을 피우고 열매를 얻었다. 물론 실패는 거듭되었었다. 그러나 좋은 뜻으로 벌인 사업이기에 하느님께서 틀림없이 도와주시리라는 것을 굳게 믿은 지정환 신부는 72년도의 휴가를 이용하여 프랑스, 영국, 벨기에, 독일 등에 있는 500여개의 공장을 전전하며 직공의 신분으로 기술습득에 최대의 힘을 다했다. 이제 임실 치즈는 조선호텔, 코스코스 백화점, 미도파, 한남 체인, 신세계, 반도 아케이드 등에서 외국인들의 신용과 귀여움을 독차지하고 있다.

정환 치즈, 성가 치즈, 카멘버, 모자레카 등의 치즈와 햄, 사라미, 간 바태 등의 쓰시지는 아직 한국인들의 식탁에 대중화 되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조합원의 이익을 위하여 조합원들이 생산하는 우유를 제값으로 사들이고, 3개월에 한번씩 이익 배당을 하고 있다.

☆ 지정환 신부 ☆

부자집의 막내 아들로 태어난 지정환(池正煥, Didier t' Serstevens) 신부는 물아가신 아버지 요한(Jean t' Serstevens)과 75세 된 어머니 마리아(Marie de Halloy)의 자애스러운 지도 가운데 성소의 열매를 거두었고, 이역만리 한국에 까지 찾게 되었다.

59년에 입국하여 61년에는 부안 본당을 사목하면서 하서면 정오리에 15정보와 보안면 신복리에 20정보를 개간하여 옥토를 이루었고, 고창군 부안면 수양리에는 50정보의 간척사업을 벌여서 배영근 신부가 마무리 지었다. 외국 신부로서의 어려움(특히 식생활과 언어의 장벽)을 이기고 부안에서는 2개의 공소(정오리, 신복리)를 세웠

다.

너무나 무리한 그는 63년 9월에 쓸개를 베어내고 11월부터 64년 5월까지 본국에 휴양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의 불타는 정열은 66년 12월부터 치즈 공장의 일로 달아 있었다. 본국의 가족들은 1주일에 하루 세끼니를 감자로 때웠고, 새차를 사려다 험차로 만족하고, 심지어는 청첩장내는 돈을 절약하여 지신부에게 보내왔다. 그 피나는 돈들이 현재의 치즈 공장 골격을 이루고 있다.

언제나 새마을 담배를 즐겨 피우는 지신부는 새마을 운동은 새마을 운동으로 부터 시작된다고 강조하며 <쓸개 빠진 신부>라고 폄갈 사람들을 웃긴다. 끊어진 구두끈을 이어서 쓰고 겸손하게 살며, 신용조합 운동과 농촌사목을 위해 그 구수한 전라도 사투리로 농민교육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

지신부는 인권회복과 사회정의 구현 운동에도 남다른 정열을 쏟고 있어, 주위에서는 오글 목사와 시노트 신부의 뒤를 잇는 3번 타자가 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치즈 공장 전경)

◎지정환 신부 약력◎

- 31. 12. 5 벨기에 출생
- 59. 12. 8 부산 도착
- 60. 3 전주 전동 보좌신부
- 61. 2-4 임실 임시 주임신부 겸임
- 61. 7 부안 주임신부 (개간사업)
- 64. 6 임실 주임신부
- 66. 12 임실 치즈공장 시작
- 70. 1→현재 농촌 사목 지도신부 (신용조합, 치즈공장)

※ 휴가(63. 11-64. 5, 72. 5-12)

※사진 제공...스타 사장 장 바오로씨

□ 양지쪽 □

□ 기도회 소식 □

인천교구 총대리(總代理, 副主教)인 진 야고보 (Rev. James Sinnott, M.M., 한국명: 陳必世, 메리놀-Maryknoll-회 소속 미국인) 신부에 대한 한국 체류 기간 연장을 취소한데에 항의와, 시노트 신부 송별 미사가 지난 4월 28일 오후 7시 서울 명동 성당에서 있었다.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 사제단이 주최한 이.미사는 시노트 신부 주례로 김수환 추기경, 지학순 주교등 150여명 이상의 전국 각지에서 참석한 사제들과 명동 성당을 꽉 메운 신도들의 뜨거운 침묵 가운데 봉헌되었다.

또한, 4월 28일 청주에서 서울로 연행된 이 한구(李漢九)신부에 대한 기도회도 청주에서 교구장 정진석 주교 주례로 있었다.

명동 기도회에서 아래의 결의문을 채택한 정의구현 사제단은 4월 29일 인천에서 갖는 기도회에도 참석했다.

*** 결 의 문 ***

- 우리는 시노트 신부의 강제 출국 지시에 대하여 항의한다.
시노트 신부의 강제 출국 지시는 분명히 종교와 신앙의 자유에 대한 침해이며, 시노트 신부의 일체의 행동은 하느님의 뜻과 양심에 입각한 것이었음을 확인한다.
우리는 당국이 즉각 시노트 신부에 대한 출국 지시를 취소할 것을 요구한다.
- 지난 4월 18일, 22일, 24일 당국은 명동 성당을 포위하며 종교 활동을 억압하는 등 살벌한 분위기로 신도들을 위협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종교 탄압행위에 대하여 우리는 항의하며 당국의 개심과 맹성을 촉구한다.
- 우리는 중앙정보부 및 수사기관의 납치와 체포, 감금 범행을 국민의 이름으로 단죄한다.
만일 폭력에 의하여 강제 납치되었을 때 우리는 즉각 명동성당에서 오후 6시에 기도회를 개최할 것이며, 이 기도회로 우리는 신앙과 불굴의 결의를 계속 다짐할 것이다.
- 불법 납치, 체포, 감금, 범행을 저지른 중앙 정보부는 이한구 신부를 천주님의 품안으로 돌려 보내고 사과하라.

1975년 4월 28일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 사제단

요십이 (93) 김병오



개점 1주년 할인판매
삼성 T.V 대리점
삼성 전주 쉐타
T.V, 냉장고, 전기용품 일절
박 영 옥(누시아)
전주극장입구 전화 ㉠ 5893

현대 광고사
*아크릴, 각종간판, 아취, 셀크인쇄
현대 DP사
*칼라흑백사진, 카메라수리
송홍섭(토마스)
전화 ㉠ 9431
남남극장과 전북신문사 비거리 중간

◎교형 여러분의 집◎
현대 사진관
김낙준(요한)
오거리 한진 옆
전화 ㉠ 6289

☆교우들의 집☆
영명 T.V 수리센터
■텔레비전, 전축, 라디오
중고품 매매, 판매, 수리
■출장비 무료
유원상(돈보스코)
전주 동부시장통 (전화 ㉠9138)

※신자들의 건강 센터※
※신자들의 집※
성심당 한약방
대지사진관(2층)
이상범(필노리아노)
육교길 구 북부배차장 옆
전화 ㉠ 6544

☆교우들의 건강 관리 센터☆
영진약국
-조계약 전문
김을태(베드로)
육교옆 중앙시장통
(전화 ㉠4577)

※집단장 청부, 문의 환영※
금강 페인트사
<고급도로, 방수액, 후판도>
전화 ㉠0876 김대례사
소방서 북편, 결핵협회 옆

제 4 지구 각 분당 소식



1. 분당 순회교육 : (5월 4일 오전 10시-오후4시)-장계, 함열, 성당
(5월 11일 오전 10시-오후4시)-여산, 삼례성당
2. 조국을 위한 월요 기도회 : 매월, 1. 3주 월요일 (5월5일) 오후 8시, 가톨릭센터에서.
신, 구교 합동으로 열리는 조국을 위한 월요 기도회에 뜻있는 많은 분의 참여를 바랍니다.
3. 김제 천주교회 그리스도 상 및 성모상 제막 봉헌식 : 오늘 10시
4. 신부님 인사발령 김병운(장계분당) 신부→중군. 박종상(중앙보좌) 신부→장계분당
5. 가족 계획 세미나 (5월 6일-9일, 매일 밤 8시-10시, 가톨릭센터)
※ 결혼 강좌는 형편에 의해서 취소되었음.
6. 제 4지구 각 분당 중고 회장단 회의 : 75. 5. 11 오후 2시, 전동성당 사제관에서.

(중앙)

전화 ②2651 주임 신부 이대권
③3874 보좌 신부 박종상
사도 회장 김영진

1. 축대인 성세 성사 : 5월 10일 6시 미사.
2. J.O.C 일반회의 : 5월 10일 오후 7시30분
3. 사도회 월례회 : 5월 4일 공식 미사후
4. 보좌 신부님께서 5월 4일 장계 분당으로 연전
신부님의 노고의 보답으로 물심양면으로 협조 바랍니다.

(복자)

전화 ② 5238 주임 신부 오기순
사도 회장 조성호

1. 사도회 월례회 : 공식 미사후
2. 옥외 행사 : 다음주일 공식 미사후(도시락 지참)
단원 및 협조단원은 빠짐없이 참석 바람
3. 복자 성우회 : 다음주일 옥외 행사와 같이함
4. 주일학교 소풍 : 5월 4일
◎성미 : 1말 5되, 누계 : 383,5되

(노송동)

전화 ②7032 주임 신부 함승천
사도 회장 조해형

1. 사도회, 성모회 월례회 : 공식 미사후
2. 노송 신용조합 월례회 : 다음 주
3. 학생회 월례회 : 다음 주
4. 성당 신축 헌금에 감사드립니다.
전갑규 : 만원, 김숙희 : 만원, 한영순 : 만원, 배봉례 : 만원, 노계순 : 5천원, 박계중 : 5천원, 이가영 : 3천원, 함영철 : 2천원, 백배남 : 2천, 박태중 : 5천원
복자성당 중신입 : 93,160원 중 남입 : 16,600원
◎신축 성미 : 1말 5되, 누계 : 253,5되

(서학동)

전화 ② 2276 주임 신부 김영일
사도 회장 이거영

1. 사도회 확대회의 : 공식 미사후
2. 레지오 마리에 옥외행사 : 다음주 상관. 활동 단원과
협조 단원 참석 바람
3. 학생 교리 : 매주 9시 있음(2째주 제외)
4. 열세자를 위한 교리시간 : 매주, 화, 수, 금 저녁 8.
30분
5. 오늘은 애령희비 거를 주일입니다.

(전동)

전화 ② 3222 주임 신부 김한철
사도 회장 이현재

1. 사도회 월례회 : 저녁 미사후
2. 성우회 월례회 : 10시 미사후. 운신부님 묘소 참배
3. 예수 승천 야외미사 : 12시 정각. 구이 저수지
4. 견진 성사 예고 일자 : 5월 24일<교리시간> 19-23일
매일 저녁 8시
◎61주년 성미 : 12말(138세대) 누계 : 4가마 4말

금주의 숭정이 은인께 감사드립니다

김 대원(요셉) 대원상회 ② 1744

(덕진)

전화 ③ 2182 주임 신부 박종근
사도 회장 김종환

1. 신자, 예비자 특별교리 : (토) 저녁 8시
2. 신용조합 임원회의 : 5월 5일
신용조합 월례회 : 다음주 공식 미사후
3. 분당 야외 미사 및 야유회 : 5. 4일 10시 덕진전지산
4. 중, 고등학교 소풍 : 5. 5일 9시, 충광사
참가비 : 200원(도시락 지참)
5. 재대꽃 및 초 봉헌을 원하시는 분 사무실 접수바람
6. 성가대 발족 : 매주 수요일 8시
◎애령희 성미 및 성금 누계 : 11되 성금 : 3,500원

* 각 분당의 금주간 소식과 지난주일 봉헌금 *

지구	분 당	소 식	봉 헌 금	지구	분 당	소 식	봉 헌 금	
제 1 지구	고 김부신태인 정	본당 순회 교육	16,616원 3,665원 2,700원 14,850원	제 3 지구	주현동 동창인 동	사도회 월례회	34,940원 34,885원	
		그리스도상 및 성모상 제막식				사도회 월례회		
제 2 지구	대 윤명중합	주일학교 봄 소풍		2,195원 30,800원 21,240원 11,935원	제 4 지구	중 앙동 서학동	축대인 성세 성사	50,345원 20,000원 18,476원 10,125원 11,905원 54,910원
		사도회 월례회					사도회 월례회	
		신용조합 설립 교육	신용조합 임원 회의					
제 3 지구	고 금여	구역 및 공소 자치 운영제 추진	3,265원 10,143원 3,950원	제 5 지구	남 원주 장진순	사도회 월례회	5,001원	
		사도회 월례회				사도회 월례회		
		사도회 월례회				사도회 월례회		
		사도회 회장단 월례회				중 고등 학생회 발족		